

지금 ‘불완전한 완성’...우리 ‘변화의 싹’을 보다

광주시립미술관, 23일까지 청년예술센터 제9기 입주예술가 발표전

동시대를 사는 청년 예술가 6인의 ‘다르듯 같은’ 시선 작가·비평가 1대1 현장 프로그램...‘오늘과 눈맞추다’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가 오는 23일까지 올해 입주한 제9기 청년예술가들의 결과발표전 ‘불완전한 완성’을 선보인다. 신진 예술가들이 작업의 방향을 점검하고, 각자의 고민을 동시에 대적 맥락 속에서 드러낸 자리다.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는 지역 신진예술인 지원을 위해 2016년 개관(구 청년예술인

원센터)했으며, 2017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2024년까지 총 84명의 예술가가 입주했다. 올해는 6명의 작가가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술관은 전시에 앞서 9-10월 작가·비평가 1대1 현장 비평 프로그램을 진행해 입주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가다듬는 시간을 마련했다.

매칭은 ▲김태양-목흥균(G.MAP 학예연구사) ▲최찬-문혜영(예술공간 집 대표) ▲박우인-박혜강(예술공간 돈키호테 디렉터) ▲문진성-백종욱(미술생태연구소장) ▲고예진-양초롱(조선대 초빙교수) ▲공운정-이은하(독립큐레이터/컬렉티브오피스 대표)로 구성됐다.

전시 주제 ‘불완전한 완성’은 입주작가들 간 협의를 통해 도출됐다. 출발선에 선 신진예술가가 마주하는 불확실성과 흔들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창작적 의미가 된다는 고민을 담고 있다.

전시에는 여섯 작가가 각자의 작업 세계를 확장 시작을 내놓는다.

고예진은 오래된 아날로그 사진의 기억을 회

화로 재구성해 왔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실제 풍경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 삶의 단편을 담담하게 표현한다.

공운정은 ‘불안’을 조형 언어로 치환하는 개념 작업을 펼친다. 불안의 기원을 탐색하며, 반복을 매커니즘으로 삼아 강박과 치유의 경계를 시각화한다.

김태양은 인터랙션과 키네틱 미디어를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의 진동과 상호 감응을 공간 안에 펼쳐 보인다.

문진성은 사회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회화로 풀어낸다. 은유·풍자·상징적 어법을 활용해 청년세대가 느끼는 사회적 부조리를 은근하게 드러낸다.

박우인은 이미지가 빠르게 생성·복제되는 시대 속 폭력성과 고통을 테마로, 굵어내고 덧칠하는 회화적 방식으로 인간의 욕망과 허무를 보여준다.

최찬은 감정의 모순과 위안의 정서를 기록해 왔으며, 이번에는 그 시선을 공동체로 확장, 성화 모티브를 통해 ‘공동체에 불을 전하고 그 책임을 탐구하는 행위’를 제시한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입주작가들은 비슷한 연령대로 동시대적 공감대를 지닌 동시에 각자의 생각을 가진 독립된 개체들”이라며 “이번 레지던시 기간이 서로 다른 관점과 마주하며 자신과 작업세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고예진작 '광주전'



공운정작 '그 안에 없고 그 곁에 남은'



김태양작 'Karmatic - Pulse'



문진성작 '나를 따라라...'



박우인작 '불안정한 영역1'



최찬작 '채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향한 헌사

박자현 개인전, 30일까지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의 얼굴이 화폭에 담겼다.

박자현 작가 개인전 ‘성스러운 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노래 (Sacred Poetry: The Unseen)’가 오는 30일까지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관장 정연주)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점묘 기법으로 인물의 표정과 시선, 주름과 숨결까지 세밀하게 포착한 회화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지만 쉽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한다.

작가에게 인물을 그리는 일은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다. 그는 보편적 인간의 고통과 정서를 시간의 흔적 속에 응축해왔다.

작가는 주로 20-30대 여성의 초상을 그려오며 불안과 막막함, 생존의 감각을 표현해왔다. 최근에는 해리기억장애를 앓는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며 작업의 방향이 ‘고통’이라는 주제로 수렴됐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섬 없이 일하던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며, 내가 마주한 감정의 근원이 결국 그녀의 삶에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작가가 집요한 시선으로 그려낸 인물의 얼굴들은 베틀과 인내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존재 자체가 하나의 ‘성스러운 시’로 읽힌다.

박자현의 관심은 개인의 기억에서 사회의 주변부로 확장됐다. 그는 성매매 집결지나 쪽방촌과 같은 공간에 주목하며 누군가의 어머니, 언니가 가족을 위해 살아야 했던 현실의 자리를 기록한다. 허름한 벽과 문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 중인 박자현 개인전 전경.

틈, 낡은 풍경을 통해 도시의 재개발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화면 위로 불러내고, 지워진 장소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묵묵히 증언한다.

전시 제목은 차학경의 ‘딕테’ 속 ‘성시’(聖詩, Polymnia)에서 따왔다. 작가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삶을 감당해온 존재들에 대한 헌사이자 구원의 노래를 그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현주 관장은 “이번 전시는 박자현이 오랜 시간 쌓아온 회화적 밀도와 진심이 응축된 결과물”이라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들의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디지털·아날로그 넘나드는 ‘걸리버 여행기’

21-23일 ACC 극장2...수험생 대상 특별 할인 이벤트도

조너선 스위프트의 고전 ‘걸리버 여행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극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연극 ‘걸리버 여행기: 줌 인 아웃’(Zoom in Out)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부산 영화의전당과의 기관 교류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앞서 재단은 지난 9월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ACC 창작·제작 연극 ‘로제타’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연극 ‘걸리버 여행기: 줌 인 아웃’은 호기심 많은 주인공 ‘바다’가 소인국과 거인국을 넘나드는 여정을 그린다.

휴대전화를 주요 무대 장치로 활용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몰입 경험을 선사한다.

어린이와 가족, 연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창의적 무대 구성으로, 관객에게 색다른 상상력과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걸리버 여행기: 줌 인 아웃’

영화의전당과 극단 하평제가 공동 제작한 이 작품은 올해 춘천인형극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된 데 이어 ‘바우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걸리버 여행기: 줌 인 아웃’은 21일 오후 7시 30분, 22-23일 오후 3시 총 3회 공연하며, 관람료는 3만원이다. 수험생 대상 특별 할인 이벤트도 있다. 수험생은 1인 4매까지 전석 1만원에 입장권을 예매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 300mg 함유.

2024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 300mg 함유.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